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양태영, 박세리, 최경주,
이원희, 신태용.



스타 감독·코치들 '코리아 파워' 보여줄까

골프 최경주·유도 이원희·체조 양태영 등
올림픽 지도자 변신...선수들 버팀목 기대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축구 대표팀에는 '팀내 최고 스타 감독'이라는 평가가 줄곧 따라다녔다. 23세 이하로 구성된 선수들에 비해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홍명보 감독의 이름값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8월5일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에도 웬만한 선수들보다 더 친숙한 이름의 지도자들이 눈에 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축구 대표팀 감독이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신태용(46) 감독은 현역 시절 1996년 K리그 득점왕, 1995년과 2001년 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2003년에는 K리그 최초로 60득점, 60어시스트를 달성했다. K리그 MVP 2회 수상도

신 감독이 사상 최초였다. 현역 때는 국가대표와 인연이 그리 많지 않아 A매치 23경기 출전에 3골을 넣은 것이 전부였던 신 감독은 이번에는 대표팀 지도자로 변신해 올림픽 메달을 노리고 있다.

지도자의 '이름값'에서는 골프가 다른 종목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아직 현역으로 활약하는 최경주(46·SK텔레콤)와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가 남녀 코치를 맡아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골프에서 '코리아 파워'를 발휘할 태세다. 최경주와 박세리는 '한국 골프의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한 선수들로 이번 대회에 직접 필드에 나서지는 않지만 20대 젊은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도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송대남(37), 최민호(36), 이원희(35)가 나란히 코치를 맡아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이원희 코치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한판승의 사나이'로 남자 73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최민호 코치는 2008

년 베이징 대회 60kg급, 송대남 코치는 2012년 런던올림픽 90kg 우승자다.

레슬링은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을 지도하는 안한봉(48), 박장순(48) 감독이 팬들에게 친숙한 이름들이다. 두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레슬링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체조에서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오심 때문에 금메달을 놓쳤던 양태영(36) 코치가, 역도에서는 '스마일 역사'로 유명한 이배영(37) 코치가 메달 조련에 나섰다. 핸드볼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2004년 아테네올림픽 결승전 명승부 당시의 실제 주인공 임영철(56)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탁구 사령탑은 이번 대회 골프 선수로 출전하는 안병훈(25·CJ)의 부친이자 현역 시절 중국 탁구 국가대표 자오즈민과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낸 안재형(51) 감독이다. /연합뉴스



KIA 사령탑 마운드 운영능력 시험대

우완 임준혁-SK 좌완 고효준 트레이드 단행
4·5선발 부재 속 한화와 홈 3연전 선발 안갯속

KIA 김기태 감독이 5강 싸움을 위해 트레이드 카드를 선택했다. 사령탑의 마운드 운영 능력이 5강 판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KIA가 지난 31일 우완 임준혁을 SK에 내주고 좌완 고효준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고효준은 정주 서원초-세광중-세광고를 졸업하고 지난 2002년 롯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베테랑이다. 야구 꽃을 피운 곳은 SK다. 방출 후 2003년 SK로 이적한 그는 프로 12시즌 동안 253경기에 등판, 32승 39패 4세이브 3홀드 평균자책점 5.39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5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11.17을 기록했다.

2003년 KIA에 포수로 입단한 임준혁은 투수로 전향, 프로 통산 11시즌 동안 158경기에 나와 18승 18패 1세이브 8홀드 평균자책점 5.18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득점한 선발로 자신의 역대 최다인 9승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6경기에서 10.00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2패를 남겼다.

'선발난'에 신음하는 KIA의 남은 시즌에서 선발 역할이 기대됐던 임준혁이었던 만큼 깜짝 트레이드다. '임시선발 체제'로 어렵게 전반기를 끌어왔던 김 감독은 "후반기 고정 선발진으로 가겠다"고 공언했다. 홍건희가 4선발을 채운 뒤, 임기준까지 NC를 상대로 호투를 하면서 선발 고민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악재가 겹쳤다. 지난 22일 선발로 3연승에 도전했던 홍건희가 3회 끝난 후 오른쪽 가슴 근육통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경기 결과 근육 손상은 아니지만 며칠 휴식을 취해야 하는 만큼 일단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30일에는 좌완 임기준이 말소됐다. 부진이 이유였다. 5선발 후보였던 임기준은 29일 SK원정에서 심각한 제구 난조로 2회도 마치지 못하고 조

고효준은 누구

선발·불펜 전천후 가능

올 시즌 평균자책점 11.17



기 강판했다.

김 감독은 고정 선발진을 구성하면서 4선발 홍건희와 함께 임기준, 임준혁, 김윤동의 이름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구상대로 선발진을 만들지 못했다. 가장 믿음직했던 홍건희가 불펜과 선발을 오가는 강행군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다. 긴박한 불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발 홍건희의 불펜 투입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 임기준의 고질적인 제구 난조 속에 또 다른 자원 김윤동도 시즌 초반의 구위가 아니다.

KIA는 4·5선발이 동시에 사라진 상황에서 한화와 주중 홈 3연전을 앞두고 있다. 한화에 강했던 임준혁의 선발 복귀가 점쳐졌지만 트레이드와 함께 선발진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불펜의 필승조로 활약했던 좌완 심동섭이 올 시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KIA는 트레이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발과 전천후 불펜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고효준이 새 전력이었다. 김 감독과 고효준은 SK시절 인연도 있다.

지난해 KIA는 트레이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한화와의 3대4 트레이드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투수 김광수가 김 감독의 믿음 속에 KIA의 필승맨으로 부활했다. 현재 KIA는 선발과 불펜 모두 고민이다. 고효준을 품은 김 감독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30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후 KIA 양현종이 김기태 감독의 축하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축구황제 펠레, 성화대 점화 1순위

前 요트 국가대표 토르벤 등 3명 거론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마라카낭 주경기장의 성화대에 불을 붙일 주인공은 누구일까?

리우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창설 이후 122년 만에 최초로 남미 대륙에서 열리는 스포츠 축제다. 그런 만큼 개막식 하이라이트인 성화대 점화를 누가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브라질 언론과 스포츠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인사는 대략 3명이다. '축구황제' 펠레(75)가 1순위다. 펠레는 지난주 상파울루 주 산투스 시에 있는 펠레 박물관에서 열린 올림픽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지는 못했으나 박물관 베란다에서 성화를 들어 보이며 주민들과 함께 올림픽 개최를 축하했다. <사진> 브라질 언론은 세계 스포츠계에서 펠레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그가 성화대 점화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의 전 요트 국가대표 선수인 토르벤 그라에우도 자주 거론된다. 그라에우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올림픽에 참가해 금메달 2개를 포함해 모두 5개의 메달을 땀. 올림픽에 관한 한 브라질에서는 최고의 스타다.

브라질 출신의 '테니스 영웅' 구스타



부 쿠에르텐도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테니스 세계 랭킹 1위를 한동안 고수했던 그는 리우 올림픽에서 브라질 글로벌TV의 해설위원으로 활동한다.

지난 4월 22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워진 리우 올림픽 성화는 5월 3일 브라질리아를 시작으로 현재 2만km에 달하는 대장정을 펼치고 있다. 1만2000여 명이 봉송 주자로 나선 가운데 성화는 그동안 300여 개 도시를 거쳤다. 성화는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다음 달 4일 리우 시에 입성한다.

리우 올림픽은 8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계속된다. 9월 7~18일에는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린다.

/연합뉴스

양현종 3년 연속 세자릿수 탈삼진

'호랑이 군단'의 에이스 양현종이 3년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 고지에 올랐다. KBO리그 역대 48번째 기록이다.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은 지난 30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100탈삼진을 만들었다. 3회 첫 타자 박정권을 상대로 탈삼진 시동을 건 양현종은 고메즈에 이어 4회 정 의윤에게 세 번째 탈삼진을 가져왔다. 그리고 6회 최정민과 정의운을 잇달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100탈삼진을 채웠다.

2014년 165탈삼진을 수확했던 양현종은 2015년 157탈삼진에 이어 3년 연속 세 자

릿수 탈삼진을 기록했다. 또한 올 시즌 토종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 자릿수 탈삼진을 넘어섰다. 앞선 NC전 등판에서는 통산 30번째 100탈삼진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양현종은 완투승으로 자신의 100탈삼진을 자축했다. SK 윤희상과 맞대결을 벌인 양현종은 121구의 투혼 속에 2-1 승리를 이끌면서 이날 경기의 주인공이 됐다. 9회까지 6개의 피안타와 2개의 볼넷으로 단 한 명의 주자에게만 홈을 허용하면서 에이스의 위력을 발휘했다. 양현종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3.21로 낮추며 6승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서석초 U-12 전국유소년 야구 정상

서울 효제초에 14-13 역전승

광주 서석초(교장 조옥형)가 2016 U-12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정상을 밟았다.

서석초는 지난 31일 경주에서 막을 내린 대회 금관리그 결승에서 서울 효제초를 상대로 14-13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양팀은 6회 19점을 주고받는 혈전을 벌였다. 1회 2점을 먼저 만들면서 리드를 이어왔던 서석초가 5-3에서 마지막 6회 수비에 들어갔다. 더위 속 집중력이 떨어진 선수들이 대거 10실점을 하면서 우승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5-

13에서 6회말 마지막 공격에 들어간 서석초가 진영우의 끝내기 안타와 함께 대거 9점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거뒀다.

양현희 감독은 "6회초 선수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한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경기를 하자고 했는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0개교가 참가해 4개조로 나누어 리그별로 우승을 다했다. 서봉리교의 수장초는 수영초와의 결승에서 4-8패를 기록, 준우승을 거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